

#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1

---

- |   |                                 |
|---|---------------------------------|
| 2 | 1. 미국 연방정부조달 시장 현황              |
| 5 | 2. 미국 연방정부 외국산 조달 현황            |
| 7 | 3. 한미 FTA 발효시 기대효과 전망           |
| 9 | 4. 한미 FTA 활용 정부조달 시장 진출 마케팅 포인트 |

## 요 약

### □ 미국 연방정부조달 금액 추이

- 2008년 이후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0년 기준 5,350억 불을 기록
  - \* 2009년 기준, 세계 수입국 5위(일본/ 5,520억불)에 필적할 만한 수준(WTO)

### □ 미국 연방정부 외국산 조달 현황

- 2010년 연방정부 조달금액(5,350억불) 중, 외국산 조달 비중은 7.2% (386억불)에 불과
  - 대부분이 해외 주둔 미군용으로, 전체 외국산 조달 (386억불)의 93%가 이에 해당
- 2010년 한국산 조달 규모는 6.56억불로, 전체 조달규모의 0.1%에 불과
  - 이중 98.2%가 주한 미군용 조달

### □ 한미 FTA 발효시, 기대효과 전망

- (개방폭 확대) 연방정부 상품·서비스 양허 하한선 인하 : 20만불 → 10만불
  -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국내 기업에 개방될 것으로 기대
- (조달실적 제출금지) 입찰·낙찰 과정에서 미국 내 조달실적 제출요구 금지
  - \* 국내기업진출 애로 사례 : 산업용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블루버드소프트는 국내와 EU 정부조달 납품 경험을 발판삼아 2년 전,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으나, ‘미국 내’ 납품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진출 초기에 고전
- 美 정부조달 바이어, 한미 FTA 발효시엔 한국산 진출 확대 예상
  - \* IT, 보안제품을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Defense Group Inc.의 Neil Cohen 사업개발부장은 ‘한국산은 미국, 중국, 일본산에 비해, 가격 대비 품질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한미 FTA 활용 정부조달시장 진출 마케팅 포인트

- 현지 파트너십 구축으로 진출기반 확보, 현지화 추진, 전문컨설팅 기관 활용 등

## 1. 미국 연방정부조달 시장 현황

### □ 연도별 조달 금액 추이

#### ○ 연방정부 조달 금액 추이

- 2008년 이후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0년 기준 5,350억 불을 기록

※ 2009년 기준, 세계 수입국 5위(일본/5,520억불)에 필적할 만한 수준(WTO)

#### < 연도별 연방 조달 금액(2005~2010) >

(단위 : 십억불,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조달액	431	468	541	538	535.0
성장률	10.5	8.5	15.5	- 0.5	-0.6

자료원 : USA spending

#### ○ 참 고 : 주정부 조달 금액(추정치) 추이

#### < 주정부 조달 금액(추정치) 추이(2007~2009) >

(단위 : 십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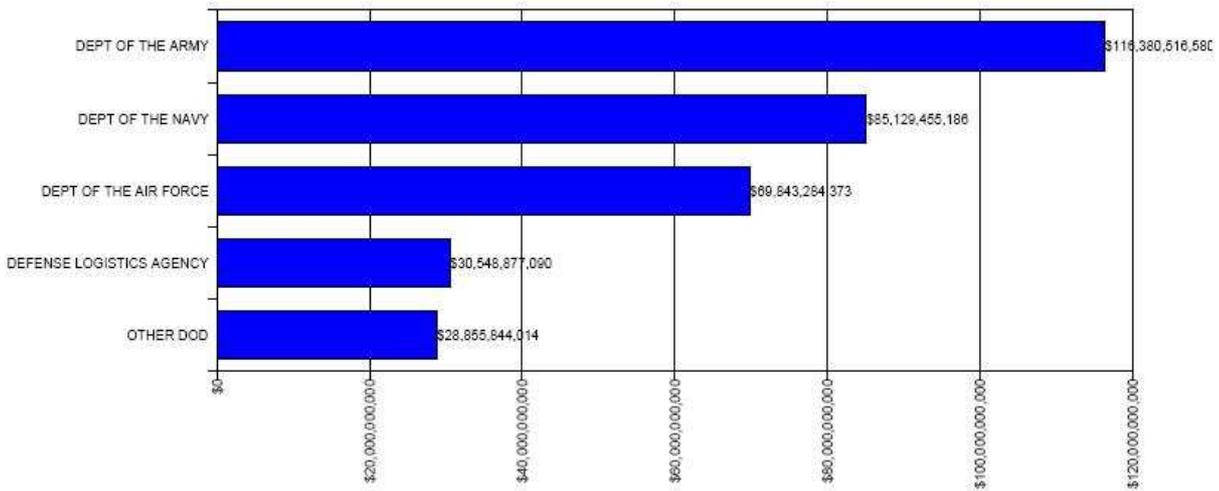
구 분	2007	2008	2009
총조달액	703	747	774
성장률	-	6.3%	3.6%

주: 미국이 2002년까지 WTO GPA 37개 양허주에 대해 통보한 주별 추정 조달액 산정법 (Current Operation+ Capital Outlay - Salaries and Wages)을 차용하여 산출

□ 주요 조달 기관 (2007년 기준)

○ 국방부(DoD) 조달금액은 약 3,308억불로 전체 조달의 약 71.9%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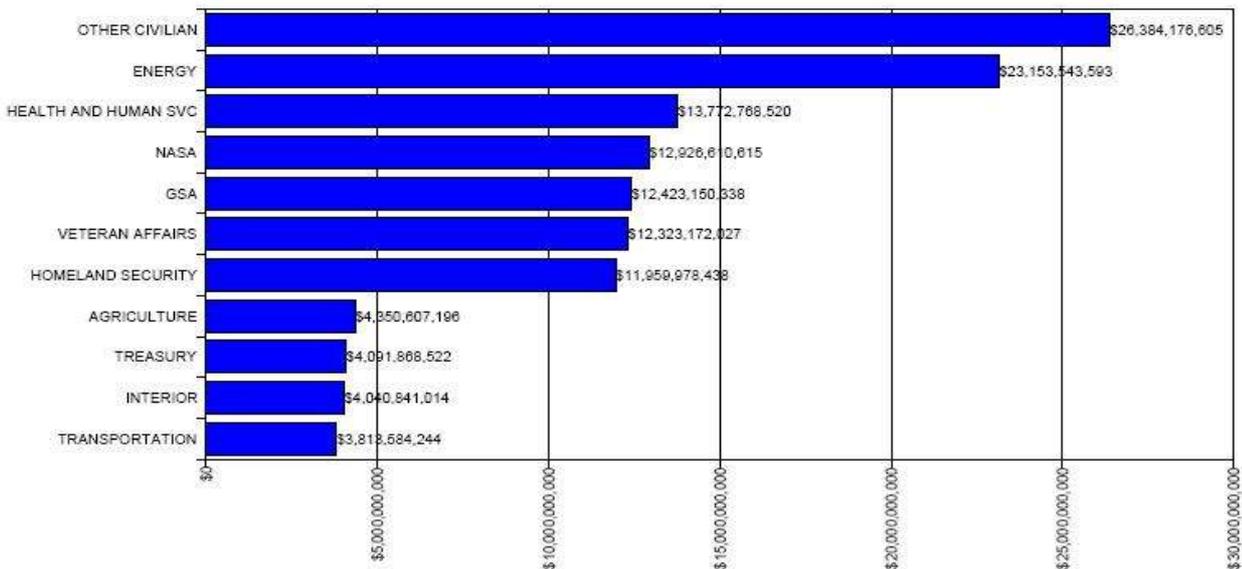
<미 국방부 소속 기관별 조달 현황(2007)>



자료원 :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 국방부를 제외한 정부 기관(civilian agencies) 중에서는 에너지부가 231억불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약 138억불을 2위를 기록

<미 국방부 제외 정부 기관별 조달 현황(2007)>



자료원 :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 □ 주요 조달 품목/서비스 (2007년 기준)

## ○ TOP 20 조달 품목 현황

(단위 : 백만불)

순 위	FSC 코드/조달품목	조달금액
1	15 AIRCRAFT/AIRFRAME STRUCTURE COMPTS	27,013
2	23 MOTOR VEHICLES, CYCLES, TRAILERS	19,773
3	58 COMM/DETECT/COHERENT RADIATION	15,240
4	65 MEDICAL/DENTAL/VETERINARY EQPT/SUPP	13,092
5	91 FUELS, LUBRICANTS, OILS, WAXES	12,636
6	89 SUBSISTENCE	10,620
7	70 ADP EQPT/SOFTWARE/SUPPLIES AND EQPT	9,345
8	19 SHIPS, SMALL CRAFT, PONTOON, DOCKS	8,276
9	99 MISCELLANEOUS	8,200
10	28 ENGINES AND TURBINES AND COMPONENT	6,115
11	14 GUIDED MISSLES	6,033
12	13 AMMUNITION AND EXPLOSIVES	5,602
13	16 AIRCRAFT COMPONENTS/ ACCESSORIES	4,683
14	84 CLOTHING/INDIVIDUAL EQPT, INSIGNIA	3,940
15	59 ELECTRICAL/ELECTRONIC EQPT COMPNTS	3,271
16	66 INSTRUMENTS AND LABORATORY EQPT	3,233
17	10 WEAPONS	2,702
18	18 SPACE VEHICLES	2,454
19	68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2,001
20	12 FIRE CONTROL EQPT.	1,868

자료원 :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 TOP 20 조달 서비스/건설서비스 현황

(단위 : 백만불)

순위	조달 서비스/건설 서비스 유형	조달 금액
1	SUPPORT SVCS (PROF, ADMIN, MGMT)	58,570
2	ADP AND TELECOMMUNICATIONS	24,471
3	OPERATION OF GOVT OWNED FACILITY	20,667
4	CONSTRUCT OF STRUCTURES/FACILITIES	20,583
5	MAINT, REPAIR, REBUILD EQUIPMENT	16,379
6	UTILITIES AND HOUSEKEEPING	13,149
7	MEDICAL SERVICES	12,386
8	MAINT, REPAIR, ALTER REAL PROPERTY	11,568
9	TRANSPORT, TRAVEL, RELOCATION	6,353
10	ARCHITECT/ENGINEER SERVICES	5,403
11	LEASE/RENT FACILITIES	4,888
12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3,711
13	SPECIAL STUDIES/ANALYSIS, NOT RandD	3,652
14	TECHNICAL REPRESENTATIVE SVCS.	3,088
15	EDUCATION AND TRAINING	2,526
16	SOCIAL SERVICES	1,578
17	QUALITY CONTROL, TEST, INSPECTION	1,242
18	MODIFICATION OF EQUIPMENT	1,063
19	LEASE/RENT EQUIPMENT	991
20	INSTALLATION OF EQUIPMENT	678
21	PHOTO, MAP, PRINT, PUBLICATION	304
22	SALVAGE SERVICES	295

자료원 :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 2. 미국 연방정부 외국산 조달 현황

### □ 외국산 조달 개황

○ 2010년 기준, 전체 연방 조달금액(5,350억불) 대비 외국산 조달액 비중은 7.2%(386억 불)에 불과

※ FPDS(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내, Country of Origin 기준에서 “US”와 “N/A”를 제외한 것만 별도로 집계

○ 외국산 조달의 대부분은 해외 주둔 미군의 현지조달로, 전체 외국산 조달 (386억불)의 93%(360억 불) 이에 해당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쿠웨이트, UAE 등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용 조달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

#### < 원산지 기준, 국별 조달 현황 >

(단위 : 백만불)

순 위	국 명	조달액	순 위	국 명	조달액
1	아프가니스탄	8,971	11	이탈리아	765
2	이라크	4,528	12	그리스	682
3	쿠웨이트	3,703	13	<b>한 국</b>	<b>656</b>
4	UAE	2,499	14	노르웨이	641
5	독 일	2,101	15	파키스탄	560
6	스위스	2,099	16	프랑스	481
7	캐나다	1,941	17	애쉬모어앤드 카르티에(호주령)	398
8	일 본	1,610	18	사우디	367
9	영 국	1,174	19	스페인	264
10	러시아	934	20	덴마크	256

자료원 :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 한국산 조달 현황

- 2010년 한국산 조달 규모는 6.56억불로, 전체 조달 규모의 0.1%에 불과  
- 이 중 98.2%가 주한 미군용 조달
- 2010년 조달 금액 기준, 한국산 구매 TOP 5 연방정부기관은 다음과 같음.

순 위	연방 기관명	조달 금액(백만불)
1	Dept. of Navy	601
2	Dept. of the Air Force	24
3	State, Dept.	8
4	Defense Logistics Agency	8
5	USAID	7

자료원 :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 3. 한미 FTA 발효시, 기대효과 전망

- (개방 폭 확대) 연방정부 상품·서비스 양허 하한선 인하 : 20만불 → 10만불
  -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10만~20만불 구간의 계약 규모는 2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이 중 국방부문을 제외한 30% 가량(약 6조원) 시장이 국내 기업에 신규 개방될 것으로 기대
  - ※ 미 국방부의 군 제품 및 서비스 조달은 일반 상업 제품/서비스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FTA 협정의 영역 밖으로 간주되며, 국방부와 외국 정부간 체결된 국방 MOU로 별도 관장
  - 사무용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소비재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조달실적 제출금지) 입찰·낙찰 과정에서 미국 내 조달실적 제출요구 금지
  - 미국 조달시장 진출 경험이 없는 국내 업체들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연방 정부 조달을 관장하는 FARs(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에 입찰자 선정시 미국 내 조달실적만을 인정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부재
    - 그러나, 조달관이 입찰 기업의 조달실적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국 내 조달실적만을 인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음.
  - 참 고 : 국내 기업 진출 애로 사례
    - ① 웨어밸리(DB 관리 소프트웨어)
      - 유력 프라임벤더와 국내 기업간 파트너링 행사인 KTW(Korea Technology Week) 2009에 참가하여 정부조달 시스템통합업체(SI)인 Accenture와 PWC 등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미국 내 판매 및 조달 실적이 없어 계약 체결 불발

## ② 블루버드 소프트(산업용 PDA)

- 국내 시장과 對EU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4년 전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으나, 미국 내 'Reference(과거조달실적)'만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인해 진출 초기에 고전

※미국 정부조달시장에서는 한국시장 판매와 對EU 정부조달 실적은 'reference'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 '미국 내' 정부조달 납품 실적이 필요

- 지난 1년 반 동안, 'Reference' 창출을 위해, 미국 파트너 업체를 GSA Schedule에 등록, 美국방부(과일렛 프로그램으로 납품)를 비롯해 다수 정부기관에 납품

※ GSA Schedule : 상업용 제품 및 서비스를 연방정부 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자격

- 'Reference' 확보로 진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조달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한미 FTA 발효시, 한국산 진출 기대 효과 전망 : 정부조달 바이어 Comments

바이어명	취급제품	FTA 발효시 기대효과 전망
Neil Cohen (사업개발부장 Defense Group Inc.)	IT, 보안제품	- IT 보안제품은 미국, 중국,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이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한국 거래선 발굴 중 - 한미 FTA 발효시, 한국산은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국방조달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납품을 확대할 전망
Ray Bucalo (부사장, Green Mill Global)	가구, 조명	- 한국산은 우수한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보유 - 한미 FTA 발효시, 한국산 조명의 납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 확보, 지역 컨설턴트 활용 등이 필요
Michael Donaldson (Maurice Electrical Supply)	보안제품 건축자재	- 한국산은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미국산 대비 우수 - 한미 FTA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판매 이후, 반품, A/S 망 확충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
Wendell Norton (판매 및 마케팅 부사장, T3 Corporation)	의료기기	- 한국산은 중국, 유럽, 일본산에 비해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이 우수 - 한미 FTA 발효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산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4. 한미 FTA 활용 정부조달시장 진출 마케팅 포인트

### □ 현지 파트너십 구축으로 진출 기반 확보

- 초기에는 프라임벤더를 파트너로 확보하여, 하청 계약 수주를 통해 경험 및 역량 축적
  - 계약 규모가 클 경우, 미국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입찰에 매달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주 가능성 저하
  - 하청 계약을 통해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면, 프라임 벤더로서 도약
- 특히, 미국은 정부조달관련 중소기업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미국 내 중소기업(교포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

### □ 현지화 추진

- 조달관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제품에 호응도가 높고, 마케팅 기회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F/U 조치, A/S 제공을 위해서는 미국 내 법인 설립이 불가피
  - 정부와 공급업체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현지 주재 필요

### □ 전문 컨설팅 기관 활용

- 제품에 대한 시장성 타진 및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인한 불이익 방지, 법적절차 자문 등을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을 고용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 컨설팅기관의 현지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이용하여 조달 프로젝트의 동향 파악 및 사전 접촉을 통한 수주 기회 확보

## □ 미국 조달시장 수요품목 파악

- 웹사이트 검색, 미 정부기관에 전화 문의를 통해 과거 구매 품목 및 규모에 대한 정보 축적 → 향후 정부 수요 예측
- 현지 전문가 추천 유망 진출 분야
  - LEDs, 센서 기술 제품, 에너지 효율제품 등 친환경 제품
  - 생체인식, 홍채/안면인식 스캐너 등
  - 비만, 당뇨 및 알츠하이머 치료용 의료건강기기 등

### ※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 미국산이나 WTO GPA 협정국, FTA 체결국, Caribbean Basin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입찰 제안이 있을 경우, 이 밖의 나라(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연방정부 조달이 전면 금지(blanket prohibition)
- 따라서, 韓-中 간 경쟁이 치열한 IT 제품 조달시 국내 기업에 유리

## □ 기본기 점검 및 다지기

-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것이 경쟁력의 기본
- 잠재 바이어(조달관 또는 프라임벤더)의 정보 제공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팅 후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F/U
  - 소량 주문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브랜드 인지도 확산
- 제품 시연을 위한 무료 샘플 배포가 관행인 바, 잠재 바이어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특허권 등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위험을 기피하는 조달관과 바이어에게 마케팅이 사실상 불가능한 바,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선결과제

## 첨부 : KOTRA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내역(2011)

사업명	개요	기간	장소
북미정부조달지원센터 운영	북미조달진출지원 인프라 운영	연 중	워싱턴
미국정부조달 선도기업 육성	유망기업 16개사 선정 및 조달진출 전과정 지원	2011.4.1 -2012.3.30	워싱턴
미국정부조달주간(KTW)	미국 현지조달기업과 파트너링	2011.6.5-7	워싱턴
미국정부조달박람회(FOSE)	IT 조달박람회 한국관 참가	2011.7.19-21	워싱턴
미국방산박람회(AUSA)	방산조달박람회 한국관 참가	2011.10.10-12	워싱턴
방산조달 상담회	미국 국방부 FCT 초청 상담회	2011.10.17-19	서울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해외우수방위제품을 테스트 후 조달하는 프로그램

## 작성자

◆ 워싱턴 무역관      권오승 과장  
◆ 구미팀                이정선 과장

Global Issue Report 11-003

## 한미 FTA에 따른 美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발행인 | 홍석우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9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